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4년 4월 11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산업기술개발과 김경우 팀장(044-203-4502), 김효선 사무관(044-203-4505)

개방형 혁신(Open Innovation)을 촉진을 위한
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추진

① '14년 국제공동연구에 588억원 투입하고 점진적으로 확대
② 독일, 프랑스, 중국, 스위스 등 중점전략국가와의 공동 R&D 프로그램을 신설
③ R&D 평가시 외국인 전문가를 참여시켜 R&D프로세스 국제화

-「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 발전방안」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결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윤상직)는 국제공동연구 내실화를 위한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 지원체계를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**「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 발전방안」**을 수립, 제7차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('14.4.10)에 상정하고 이를 확정하였다.

□ 동 방안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동력인 국내 기업과 **해외** 산·학·연과의 **공동연구 활성화**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으로,

○ 기술 발전의 가속화, 기술간 융합의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맞추어 **우리 기업의 폐쇄적인 기술개발 체질을 개선**을 위한 효율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.

※ 전 세계적으로 국제공동연구가 확산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글로벌 R&D 기업 비중 (1.3%)은 OECD 최저 수준

□ 정부는 국내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위해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에 **최근 5년간 연평균 8.6% 예산을 증액**('09년 390억원 → '14년 589억원)하는 등 **양적인 측면에서는 지원을 크게 확대**해 왔으나,

○ 정보 부재, 교섭력 미비로 인해 중소·**중견기업 자체로 우수 해외 파트너 탐색이 어렵고**, 국제공동연구 평가·수행에 **일반 R&D제도를 차별없이 그대로 적용**하는 등 기존 국제공동연구 지원 제도 및 체계에 **다수의 문제점**이 여전히 존재해 왔다.

□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·개선하기 위해 수립된 동 발전방안에서는

○ 정책수요자인 중소·중견기업이 국제공동연구 수행 시에 당면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지원방식에 있어 국제공동연구의 특성이 적의 반영될 수 있도록,

○ **△해외 파트너 탐색, △공동연구과제 기획·선정, △공동연구과제 수행·평가, △성과확산** 등 국제공동연구 4개 주기별로 발전방안을 도출·제시하였다.

주기별 세부발선방안

1 파트너탐색 지원기능 강화 : 국내·해외 국제기술협력 플랫폼 구축

<현행 문제점>

◈ 국내 중소·중견기업의 우수 해외 R&D 파트너 탐색 지원을 위한 **국내·국외 기술협력지원거점 미비**

- 정부주도(전담기관)의 국내 지원, 현지 지원거점(GT)의 역할 미미

○ **(국내)** 중점국가, 전략분야별 **'기술교류회'**를 구성하여, 기술협력 수요 조사 발굴 및 기술협력 활동의 국내 구심체 역할 수행

- **국가별 경제·기술 전문가**로 구성하며, 공공연구소 또는 업종별 협·단체가 간사기관으로 지원

- 예산상황 및 기술수요 등을 고려하여 **금년도 3~4개 국가*·산업**을 대상으로 시범 구성하되, 향후 성과분석 후 대상확대 검토

* 미국, 독일, 이스라엘, 중국 등, 추후 국가 및 산업 확정 예정

○ **(해외) 글로벌기술기술협력거점(GT: Global Tech)**를 보완·개편하여 해외정보 수집, 재외 한인공학인 및 국내 기술교류회 활동 지원

- 현재 4개국, 5개 GT를 점진적으로 **EU, 동남아 등으로 확대** 검토

* 미국(워싱턴, 실리콘밸리), EU(벨기에), 이스라엘, 중국 등 5개 거점에 산업기술진흥원(KIAT), 산업기술평가관리원(KEIT)의 인력을 파견

- GT의 **현지 기술인력을 보강**하고, KOTRA, 출연연 해외사무소 등 **현지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**하여 현지 가용자원을 적극 공유

2 국제공동연구 전략성 강화

<현행 문제점>

◈ 국제공동연구과제가 **주로 자유공모형에 의존**, Top-Down 방식의 사전기획 부족 ⇒ **국제협력의 중장기 전략성 부재**

※ 13년 예산지원기준 94%가 자유공모형으로 지원

○ 기술 선진국 대상의 **기술습득형 과제는 기획 중심 방식**으로 전환하되, 신흥국 시장개척을 위한 시장진출형 과제는 자유공모 유지

- 기술습득형 기획과제 비중을 **'13년 14% 수준에서 '17년 30% 수준으로 확대**

○ 현 정부의 핵심 산업기술정책인 **'산업엔진 프로젝트'는 기술습득형으로 기획하거나 품목지정방식 자유공모**를 통해 추진

- 금년도에는 기술습득형 국가 대상으로 **5개 과제를 기획·추진**

○ 국가간 공동펀딩을 확대하여, '13년 2개 공동펀딩 R&D 프로그램을 **'17년까지 10개로, 예산 비중을 20%에서 60%로 확대**

※ '13년 국제공동 R&D예산(503억원) 중 한-이스라엘 20억원, 유레카 78억원
'14년 추가로 佛, 獨, 中, 스위스(VIP 순방 성과)와 추진 합의

3 국제공동연구 R&D 프로세스 개선

<현행 문제점>

◈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시 국내 R&D 평가시스템을 그대로 적용 ⇒ 국제공동연구의 특수성 배제, 주한 외국인의 정부 R&D 참여 제한

○ **주한 외국인 기술전문가** 등으로 **'글로벌 평가단'**을 구성, 국제공동연구과제의 기획·제안 및 평가 등 전주기에 걸쳐 적극 활용

○ **주한 외국계 교수 및 대학의 국내 R&D 진입장벽 제거**

- 기획형 국제공동연구과제 **기획에 외국인 전문가를 참여**

※ 국내 이공계 외국인 교수 919명(공학 530명, 자연과학 389명) (KISTEP, 2012년)

-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 등 제반서식, 관련 규정 등을 **영문으로 제공**하고, 사업공고문도 한글과 영어 동시 게시

- 과제 선정 및 평가 시 **외국인 전문가 참여를 확대**(~50%)하고, 원칙적으로 평가위원회를 영어로 진행

- 사업계획서 작성·평가시 **연구자(특히, 외국계 교수) 부담 완화**를 위해 **2단계 평가방식 도입**하고, **준비기간 확대(3개월 → 5개월)**

1단계(서면평가, 2개월)		⇨	2단계(본평가, 3개월)	
기술개발 요약서 (5쪽이내)	최종선정과제 2~3배수 선정		본 사업계획서, 등 기타 서류 일체	현장실태조사, 평가 위원회

○ **외국계** 공과대학 및 외투 R&D센터('13.6월 현재 1,227개) 대상 **전용 공동연구프로그램** 도입

- '14년, '우수기술연구소(ATC)' 사업 내 신규과제 5개(30억원) 지원하고, '15년,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內 **'글로벌 융합트랙'** 신설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4 국제공동연구 성과확산 기반구축

<현행 문제점>

◈ **형식적 종료평가, 점검 위주의 사후관리** ⇒ R&D 성과물의 비즈니스 연계 등 **성과 환류에 한계**

□ **지재권(IP) 컨설팅 지원 강화**

○ 해외기관과의 평등한 공동연구 협상을 위해 **'표준계약 가이드라인'**을 제공하고, 특허법인을 주선하여 **'IP 컨설팅 서비스'** 제공

○ R&D 수행자 및 전담기관을 대상으로 **IP 협상전략 교육** 지원

□ **국제공동연구 홍보 활성화**

○ **'이달의 신기술'** 영문판 발간시 국제공동연구 사례를 소개하고 우수성과를 홍보

○ **OECD와 정기적으로 국제 산업기술컨퍼런스를 개최**('14.5월)하여 우리기술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국제기술협력의 방향성 정립

□ 산업부에서는 국제기술협력 전용으로 '14년 589억원 예산을 투입하며, 예산 당국과의 협의하여 국제기술협력 전용 예산을 점차 확대하나갈 계획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김효선 사무관(☎ 044-203-450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산업기술국제협력 사업 개요

□ **(목적)** 국내기업, 대학, 연구소 등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선진기술을 보유한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,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교류, 기술도입 촉진 및 전략적 기술제휴를 통한 세계시장진출 지원

□ **(현황)** '14년 589억원 예산규모로 **양자·다자간 국제공동 R&D, 국제협력 기반구축, 전략국가** (신흥국) **협력사업**으로 운영

○ **(국제공동 R&D)** 국내·외 산학연간 국제공동연구를 지원 (512억원)

○ **(국제협력 기반구축)** 해외 현지에 기술협력거점 구축하여 파트너 발굴을 지원하고,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여 컨설팅 지원 (37억원)

○ **(전략국가 협력)** 베트남, 중국, 인도네시아 등 주요 신흥국과 전략적 협력 및 신흥국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협력 지원 (40억원)

※ R&D 통합과제관리시스템 (www.pms.re.kr)에서 동 사업의 상세 공고문 확인 가능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내역사업명	'14예산	전담 (주관)
1. 공동R&D	일반형 국제공동연구	36,053	KIAT
	유럽다자간 R&D	8,249	
	한·불, 한·독 R&D	1,000	
	한·이스라엘 R&D	2,500	KIAT (한이재단)
	한·중 R&D	1,050	KIAT
	R&D 소계	51,212	-
2. 기반구축	글로벌기술협력기반육성	2,250	산업부, KIAT
	해외전문가컨설팅 (신규)	1,450	KIAT
	기반구축 소계	3,700	-
3. 전략국가	한-베 소재부품/인력양성	3,240	KIAT
	시장진출형 일반형 국제공동연구	700	KIAT
	전략국가 소계	3,940	-
소계		**58,852**	**-**

참고 2 양국펀딩형 공동 R&D 프로그램 추진현황

□ 추진경과

○ 그간 이스라엘, EU 등 2개국과 R&D 프로그램을 추진해왔으며, 최근 VIP 순방을 계기로 중국, 프랑스, 독일, 스위스 등 4개국과 공동 R&D 프로그램을 신설

□ 국가별 공동 R&D 프로그램 개요

○ (이스라엘) 양국 협정에 의해 매년 국가별 200만불씩 공동 기금을 조성하고 양국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여 기금 운영 및 양국 기술협력 강화 ('04년~)

- 매년 2회 한이스라엘재단 이사회*를 개최하여 공동 R&D 과제 연 10개 내외로 선정

* 韓 산업부 국장, 이스라엘 산업부 수석과학관(차관급)을 포함한 양국 관련 전문가 7명으로 구성

○ (EU) EU의 공동연구 네트워크 지원 프로그램인 EUREKA에 준회원국으로 가입 ('09년)하였으며, '14년에는 EU 중소기업 전용 R&D 프로그램인 유로스타2에도 가입 (연 10개 내외로 과제지원)

○ (중국, 프랑스, 독일) '14년 양국 공동 과제공고를 실시하였으며, 국가별로 약 10억원 규모 (국가별 4개 과제내외)로 공동 R&D 프로그램을 조성함

○ (스위스) '15년부터 공동 과제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며, R&D 프로그램 규모, 추진일정, 추진방식 등을 논의 중

□ 향후계획

○ 중점협력국가 중심으로 양국 공동펀딩형 R&D 프로그램을 '14년 6개에서 '17년 10개까지 확대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